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项目

民族文字出版专项资金资助项目

# 두룽족

独龙族

Dúlóngzú

편자 묘운장  
역자 김순저



로녕민족출판사  
외국어교학과 연구출판사

© 金顺姐 2014

©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有限责任公司 2014

### 图书在版编目(CIP)数据

独龙族：朝鲜文 / 苗运长编；金顺姐译. —沈阳：  
辽宁民族出版社，2014. 9  
(民族文化经典故事丛书 / 王泉根主编)  
ISBN 978-7-5497-0855-0

I. ①独… II. ①苗… ②金… III. ①独龙族—民  
族文化—中国—少儿读物—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①K286.5-4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14)第215982号

## 独龙族

### DULONGZU

---

出版发行者：辽宁民族出版社

地 址：沈阳市和平区十一纬路25号 邮编：110003

印 刷 者：沈阳奇兴彩色广告印刷有限公司

幅面尺寸：180mm×240mm

印 张：5

字 数：40千字

印 数：1-1500

出版时间：2014年9月第1版

印刷时间：2014年9月第1次印刷

责任编辑：张学林

封面设计：杜 江

责任校对：李 京

---

标准书号：ISBN 978-7-5497-0855-0

定 价：18.00元

法律顾问：陈 光

版权专有 侵权必究

如有印装质量问题，请与出版社联系调换

网址：www.lnmzchs.com

淘宝网店：http://lnmz2013.taobao.com

举报电话：024-23284336

邮购电话：024-23284335

联系电话：024-23284340

# 《민족문화경전이야기총서》 편집위원회

주편

왕천근

부주편

장해양

학상근

편집위원회성원(가나다 순)

곽우파

두얼버타이(몽골족)

리소빙

푸즈다링(이족)

샌미시누(위글족)

석국용

장금수(투자족)

전산천

정 아 (회족)

황 연(거로족)

양 화

웅덕정(푸미족)

왕 리(만족)

왕 봉(바이족)

왕효징

위 평(짱족)

왕해연(창족)

심고전문가(가나다 순)

김여빈(회족)

송 전(몽골족)

수 청(몽골족)

장약박(몽골족)

왕철지(몽골족)

# 서 언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요

56개 형제자매는 한가족일세...

중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노래를 익히 알고있을것이다. 중국사람이라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년장자이든 년소자이든 이 아름다운 선률과 열렬하고 경쾌한 노래에 감동될것이며 혈관속에서 사뭇치는 중국심(中国心)을 그 누구도 개변시킬수 없을것이다.

중국은 예로부터 하나의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다. 새중국이 건립된후 식별을 거치고 중앙정부의 확인을 받은 민족은 56개이다. 한족을 제외한 55개 민족은 인구가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때문에 습관적으로 “소수민족”이라고 일컬어왔다. 이 55개 소수민족은 몽골족, 회족, 장족, 위글족, 묘족, 이족, 좡족, 부이족, 조선족, 만족, 좡족, 요족, 바이족, 투자족, 하니족, 까자흐족, 따이족, 리족, 리수족, 와족, 씨족, 고산족, 라후족, 수이족, 둥샹족, 나시족, 징퍼족, 끼르기즈족, 투족, 다우르족, 무로족, 창족, 부랑족, 싸라족, 모난족, 거로족, 시버족, 아창족, 푸미족, 따지크족, 누족, 우즈베크족, 로씨야족, 어원크족, 더양족, 보안족, 위구족, 징족, 따따르족, 두통족, 오로첸족, 허저족, 먼바족, 로바족, 지노족이다.

중국 각 민족의 분포특점은 대잡거(大杂居), 소집거(小聚居)에 서로 섞여서 거주하는것이다. 한족지구에 소수민족이 집거해있기도 하고 소수민족지구에 한족이 섞여서 살기도 한다. 이런 분포구조는 장기적인 력사발전과정에서 여러 민족이 서로 교제하고 류동하면서 형성되였다. 중국의 소수민족은 분포가 광범위한바 전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마다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있고 절대 대부분의 현급행정구에는 두개 이상의 민족이 거주하고있다. 소수민족은 주로 내몽골, 신강, 녜하, 광서, 서장, 운남, 귀주, 청해, 사천, 감숙, 료녕, 길림, 호남, 호북, 해남, 대만 등 성과 자치주에 분포되여있다. 중국에서 민족성분이 제일 많은 성은 운남성

으로서 25개 소수민족이 세세대대로 거주해왔다.

세계의 동방에 우뚝 선 중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있다.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56개 민족은 정치, 경제, 지리환경, 종교신앙, 풍속습관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동종동원동근동맥동습동연(同种同源同根同脉同习同缘)의 공성을 갖고있는 한편 각 민족지간의 문화적차이도 갖고있다. 이로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중화민족대가정문화를 형성하였다. 내몽골대초원 몽골족의 “나다무(那达慕)” 경마에서 운남 시쌍반나 타이족산채의 발수절(泼水节)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지붕에서 전해내려온 신비한 고대 장족의 서사시 《거샤르왕전》에서 리강 량안 류삼저(刘三姐) 고향의 짝족대창(对歌)에 이르기까지, 장백산아래 해란강반 조선족의 장고춤에서 청해호반에 울려퍼지는 투족의 “꽃”노래에 이르기까지, 푸르름에 도취하게 하는 신강 톨판 포도골짜기에서 너울너울 춤추는 위글족의 무용에서 꿈같고 그림같은 대리바이족자치주 창산이해에서 둥둥거리는 삼현가락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런 오색찬란하고 풍격이 각이한 다민족문화가 중국문화의 장려한 화폭을 공동히 구성하였다.

중국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기상만천한 중국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를 세세대대 전해내려가며 중화민족의 정신적고향을 구축하기 위하여 외국어교학과연구출판사에서는 민족문화에 관련된 학자와 작가들을 특별초청하여 광대한 소년아동을 위한 이 “561문화과제—민족문화경전이야기 총서”를 편찬하였다.

이 총서는 전문 신세기 소년아동들을 위해 집필한 맞춤형도서라고 할수 있다. 한개 민족에 한책씩 모두 56권이다. 총서는 56개 민족의 역사문화발전을 주선으로 하면서 각 민족의 다채로운 이야기예술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고 그림과 글이 어우러져 풍부하고 다채로우며 생동하고 형상적이므로 사상성, 이야기성, 지식성, 가독성을 한몸에 지니고있다.

56개 민족은 56송이의 꽃이다. 56권의 좋은 책을 모두어 한마디로 엮어본다. 우리 중화를 사랑하자. 좋은 책을 여럿이 읽자, 책을 읽으면 마음이 자란다.

“561문화과제” 편찬위원회

# 목 록

---

## 제1장 고산협곡속의 두룽족

- 두룽족기원에 관한 전설 /9
- 무평쥬와 무니진 /17
- 두룽족문자에 관한 전설 /19
- 루진설이 마귀를 항복시키다 /21
- 사냥꾼이 태양을 쏘아 떨어뜨린 이야기 /23
- 별처녀 /25
- 개구리가 안해를 맞다 /27

## 제2장 두룽족의 명절풍습

- “카체와”절 /35
- 소잡이풍습의 유래 /37

## 제3장 두룽족의 생활풍습

- 소박하고 실용적인 두룽모포 /39
- 두룽족지역에서 벼농사를 하지 않는 원인 /39
- 가금가축의 유래 /41
- 산비탈에 지어진 다락집과 대오리집 /43
- 아슬아슬한 “대바줄” /43
- “길에 떨어뜨린것을 줏지 않고 밤에 문을 걸지 않는” 미덕 /43



## 제4장 두릉족의 생산방식

불에 관한 전설 /45

그물의 매력 /47

벌중의 래원 /49

명궁수 푸씨가 범을 쏜다 /51

## 제5장 두릉족의 민간이야기

구리솥으로 마바리대오를 바꾸다 /55

고아 공간이 팔남매와 지혜를 겨루다 /57

태양산의 이야기 /61

신비로운 모자 /65

부유한 도깨비 /69

## 제6장 두릉족의 동물우화

개가 혀를 내밀게 된 유래 /73

노루와 눈썹 /75

산쥐와 범 /76

원숭이가 옥수수를 훔치는 까닭 /77

원숭이는 왜 야외 나무우에서 사는가 /79

## 참고문헌





## 제1장 고산협곡속의 두룽족

두룽족은 우리 나라에서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중의 하나이다. 주로 운남성 서북쪽 공산(貢山)자치현의 두룽강(独龙江)협곡량안과 북쪽의 노강(怒江)량안에 분포되어있다. 2000년 전국인구조사 통계에 의하면 두룽족의 인구는 도합 7천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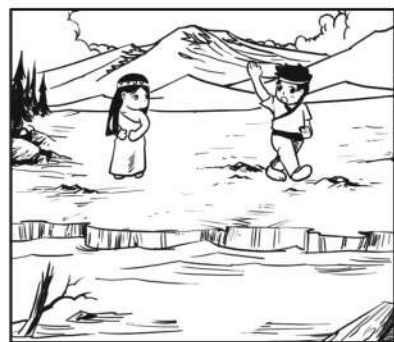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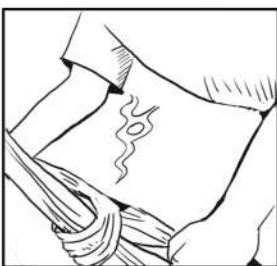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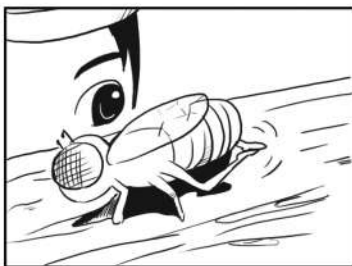
두룽족은 고대 남쪽으로 이주한 저강인(氏羌人)에서 비롯되었고 “두룽”이라고 자칭했다. 한문력사책에서는 일찍 “구인”(俅人), “곡인”(曲人)이라고 불리운적이 있다. 새 중국이 건립된후 본 민족의 소원에 따라 정식으로 “두룽족”이라고 명명하였다.

두룽족의 기원과 력사에 대해서 현존하는 문헌자료나 기록이 적다. 두룽족인민들은 기나긴 력사의 흐름속에서 수많은 신화전설을 만들어 인류의 탄생과 발전을 해석하였으며 그것을 세세 대대로 전해내려오고있다.

### 두룽족기원에 관한 전설

머나먼 옛날 지상에는 인간이 없었다. 하늘에서 사는 “거멍”(格蒙, 두룽어로써 하늘의 최대 신)이 돌판에서 흙으로 사람 둘을 빚었다. 잘 빚어진것은 남자로 되었고 그리 잘 빚어지지 못한것은 녀자로 되었다. 거멍이 흙사람을 향해 입김을 세번 불자 그들은 호흡을 하게 되었고 생명을 갖게 되었다. 둘은 오누이가 되어 이때로부터 지상에 사람이 있게 되었다.

오누이가 태어난후 하늘에서는 아흐레동안 큰비가 쏟아져 지상에는 홍수가 범람했다. 또 아흐레가 지난후 홍수는 점점 물러갔고 지상은 가는 곳마다 벌거숭이가 되었다. 강으로 죽은 짐승들이 많이 떠내려왔다. 오누이는 배가 고팠다. 볼도 없어 하는수 없이 짐승들을 건져내어 가죽을 벗기고 날것을 먹었다. 오빠는 얼굴에 피를 묻혀가며 먹어댔지만 녀동생은 감히 날것을 먹지 못하고 칼로 간을 조금씩 편으로 베어내어 말려서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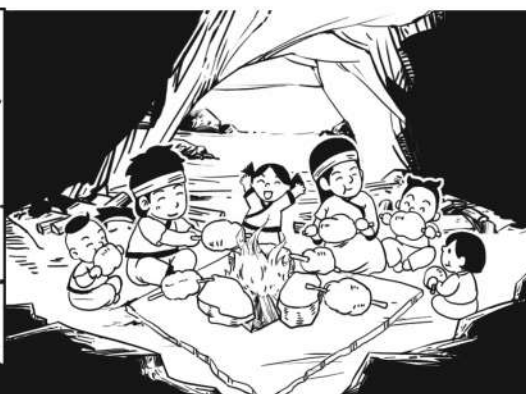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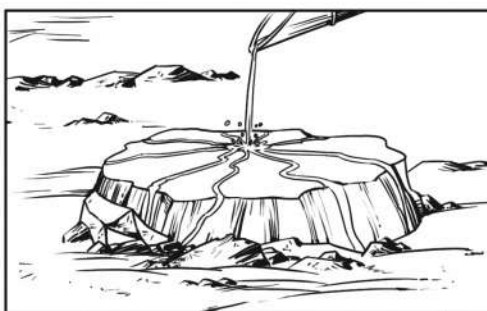


그때 어디선가 큰 파리 한마리가 날아와 그들사이에 내려앉더니 뒤다리를 들고 끊임없이 비벼댔다. 오빠는 그것을 보고 령감을 얻어 나무막대기를 구해다가 땅에 단단히 꽂아놓았다. 그리고 입은 베옷을 한조각 찢어서 나무막대기에 감고 비벼댔다. 그러자 베에서 연기가 나고 불꽃이 피어났다. 오누이는 기뻐서 소리쳤다.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다.”

그러나 불꽃은 순식간에 꺼졌다. 그들은 매우 슬펐다. 그다음에도 불꽃은 인차 꺼져서 그들은 매우 조급해났다. 세번째에는 오빠가 마른 청태를 찾아다 인화를 해서야 불꽃이 죽지 않고 피어올랐다. 불이 있어서 고기를 익혀 먹을수가 있었고 더는 날것을 먹지 않아도 되었으며 생활은 날로 좋아졌다.

오누이는 너무 외로워서 두 길로 나누어 사람들을 찾으러 가기로 하였다. 녀동생은 갖고있던 빗을 두개로 쪼개여 하나는 오빠에게 주고 하나는 자기가 가졌다. 그들은 강가에서 헤어졌다.

오빠는 북쪽 상류로 갔고 녀동생은 남쪽 하류로 갔다. 길도 많이 걷고 시간도 많이 흘렸지만 한 사람도 못만났다. 산과 강가의 나무가 굵고 높게 자랐을 때야 그들은 강을 사이두고 만나게 되었다. 오빠는 강의 동쪽에 있었고 녀동생은 서쪽에 있었다. 오빠는 상수리나무를 찍어다가 땀목을 만들어 타고 강을 건너왔다. 둘이 만나서 각자의 절반짜리 빗을 꺼내 맞춰보니 딱 맞아들었다. 오빠가 동생에게 오가는 길에서 사람을 만났느냐고 물으니 동생은 한 사람도 못만났다고 하였다. 녀동생이 물으니 오빠도 같은 대답을 했다. 할수없이 그들은 원래 살던 거와거얼푸산(格瓦格尔普山)의 동굴에 가서 살았다.



밤이 되자 오빠는 동굴의 이쪽에서 자고 녀동생은 저쪽에서 잤다. 두 사람 사이에는 돌담을 쌓아놓았다. 그러나 그들이 깨여났을 때에는 돌이 같이 자고있었다. 중간의 돌담을 건드린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녀동생이 오빠에게 “우린 원래 따로따로 잤는데 오빠는 어떻게 나한테로 왔어요?”라고 나무랐다. 오빠는 억울해서 말했다. “나도 모르겠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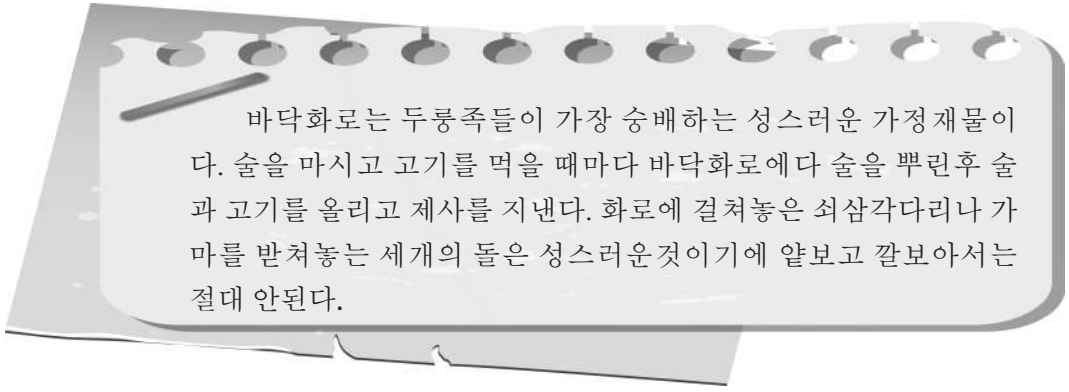
이튿날 밤에는 각자 주위에 땔나무를 쌓아놓고 잤지만 후에는 저도 모르게 또 같이 자게 되었다. 쌓아놓은 땔나무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누이는 더 의아해졌다. 사흘날 밤에 그들은 쌓아놓은 땔나무우에 물이 가득 담긴 대나무통을 올려놓았다. 대나무통은 살짝 건들기만 해도 옆질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오누이가 깨어나보니 여전히 같이 자고있었는데 대나무통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고 물 한방울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오누이는 너무 궁금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오빠가 녀동생에게 말했다. “아마 이는 거멍의 뜻인거야. 우리보고 결혼하여 후대를 이어가라는거지.”

오빠는 대나무통을 들고 거멍에게 기도했다. “만약 거멍님께서 우리 오누이를 부부로 맺어줄 뜻이 있다면 대나무통에서 쏟아진 물은 아홉갈래로 나뉘질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손들은 이 아홉갈래 강가에서 살아갈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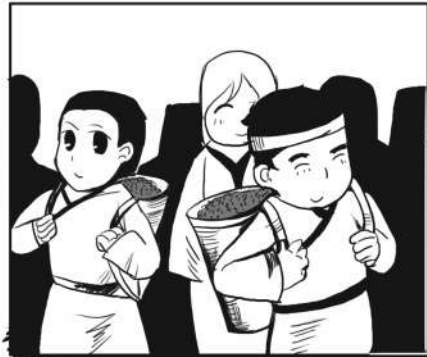
말을 마친 오빠는 대나무통의 물을 돌판우에 쏟았다. 물은 즉시 아홉갈래로 나뉘어 흘러내려갔다. 이렇게 오누이는 부부가 되었다.

그들은 결혼후 아홉명의 아들과 아홉명의 딸을 낳았다. 매번 한쌍의 아들 딸을 낳아서는 결혼시키고 그들을 대신해 동굴에 불을 지피고 바닥화로를 앉혀주었다. 이렇게 모두 아홉개 바닥화로를 앉혀주었다.



바닥화로는 두룽족들이 가장 숭배하는 성스러운 가정재물이  
다.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을 때마다 바닥화로에다 술을 뿌린후 술  
과 고기를 올리고 제사를 지낸다. 화로에 걸쳐놓은 쇠삼각다리나 가  
마를 받쳐놓는 세개의 돌은 성스러운것이기에 알보고 깔보아서는  
절대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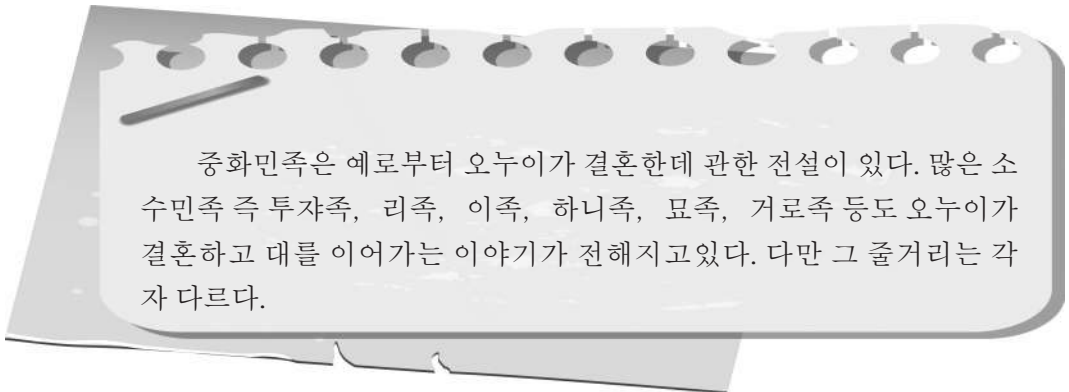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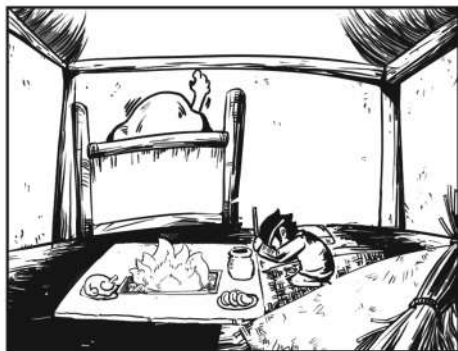
아이들은 무력무력 자랐다. 모두 총명하고 근면했다. 활, 칼, 작살을 만들줄 알았고 사냥을 하고 화전경작을 하며 베를 짜고 광주리를 엮을줄 알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녀들기간에 갈등이 생겼고 자주 싸웠다. 그러자 그들은 활을 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즉 과녁을 맞힌 사람이 맞히지 못한 사람을 죽일수 있다는 것이었다.

년로하신 아버지는 그 일을 알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린 다 거명한 데서 온것이니 서로 죽이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과녁을 맞힌 사람은 맞히지 못한 사람을 죽이지 말고 맞히지 못한 자는 맞힌 자에게 복종하고 그의 말을 들으며 공물과 세금을 바치도록 하라.”

모두들 동의했다. 서로 겨룬 결과 장남과 장녀가 과녁을 맞히고 나머지 자녀들은 맞히지 못했다. 장남과 장녀는 옥수수, 조, 보리중에서 제일 좋은 종자를 골라지고 해가 솟아오르는 동쪽 금사강쪽으로 가서 벼슬을 하고 후에 한족으로 되었다. 그곳의 곡식은 잘 자랐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다. 과녁을 맞히지 못한 동생들은 공물과 세금을 바치는 백성이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멍거우당(蒙沟当)”에서 살다가 시간이 오래 지남에 따라 인구가 많아져서 아홉개 강의 량안에 분산되어 살았다. 셋째아들과 딸은 두룽강에 와서 살았고 둘째아들과 딸은 만마의 더쥬강(得久江)쪽으로 갔으며 여섯째아들과 딸은 만마의 라다거(拉打阁)일대의 당써얼(当色尔)로 갔다. 넷째아들과 딸은 만마 찬버부(产薄布)의 멩녕멍궁(蒙能蒙共)에 갔는데 그곳은 해가 지는 곳이었다… 그후부터 아홉개 강가에는 오누이가 낳은 아들 딸과 그들의 자손들이 살았다.



중화민족은 예로부터 오누이가 결혼한데 관한 전설이 있다. 많은 소수민족 즉 투자족, 리족, 이족, 하니족, 묘족, 거로족 등도 오누이가 결혼하고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다만 그 줄거리는 각자 다르다.



## 무평주와 무니진

아득한 옛날 땅우에는 인가가 없었다. 하늘에는 두 신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평주이고 다른 하나는 무니진이였다. 무평주는 권리가 가장 컸으며 하늘과 땅의 갓은 귀신의 충우두머리로서 하늘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살았다. 무니진은 하늘의 땅우에서 살았다.

무니진은 하늘의 땅우에서 나무를 찍어 산불을 놓기로 했다. 그가 주위의 나무를 다 찍어놓고 이튿날 와보니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어제 찍은 나무가 언제 그랬느냐는듯이 뭉땅 다시 살아나있었다. 그가 다시 찍어넘기고 사흘날 와보니 마찬가지로였다. 이렇게 몇번이나 반복되자 꽤 씹히기도 하고 화도 났다. 그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알아내려고 마음을 먹었다.

저녁에 그는 활을 들고 나무를 찍어놓은 수림에 와서 매복해있었다. 어둠이 깃들고 달이 떠올랐다. 그때 하늘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이 하얀 로인이 훨훨 날아 내려왔다. 그는 땅우에 이른후 찍어놓은 나무를 향해 후후 하고 입김을 불었다. 그러자 눈 깜박할 사이에 그 나무들은 모두 살아났다. 무니진은 화가 나서 로인앞으로 달려가 활로 쏘려고 하는데 로인이 입을 열었다. “나를 쏘지마. 나는 네 외삼촌이야. 네 중매를 서려고 왔어. 내 딸을 너한테 시집보낼 생각이야.” 과연 며칠후 로인은 딸을 보내와 무니진의 안해로 되게 하였다. 인간의 남녀가 부부로 맺어지기 시작한것은 바로 이때부터이다.

결혼후 그의 안해는 꿀벌, 석벌, 제비, 박쥐 등 많이 낳았지만 사람은 하나도 못낳았다. 안해가 무평주한테 가서 점을 쳐보았다. 무평주가 그녀에게 사람을 낳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무니진의 안해가 임신했을 때 쉼라쵸(索拉乔)의식으로 신에게 제사를 지냈더니 남자아이를 낳았다. 후에 또 임신했을 때 무쉬와(木索哇)의식을 치렀더니 딸아이를 낳았다.